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4년도 표어 ☎

성령과 말씀이 충만한 사도적 교회

☎ 생활지침 ☎

1. 거듭난 사람
2. 성숙한 신자
3.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천국시민

발 행 인: 이 중 윤 발 행 처: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 517-7651 ~ 5 팩스 / 512-1225

오늘 새 예배당 입당 새 일을 행하리니 별관도 사용키로

모두의 힘을 모아 설비와 이전을 마치고 오늘 예배를 새예배당에서 드린다. 좁다, 좁다 하면서도 복음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계속해 왔던 우리는 이제 더욱 부지런히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사43:19)

주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야 한다.

입당감사 찬양예배

서울교회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여는 오늘, 오후 4시 20분부터 새 예배당 앞 뜰에서 떡잔치를 연다. 저녁 찬양예배는 할렐루야 찬양대(대장: 김대호 장로, 지휘: 박정선 집사, 반주: 조은주 집사)가 주관하는 입당 감사예배로 드린다. 제 1부는 주님의 성소를 찬양하는 곡들로, 제2부는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자는 내용의 찬양으로 구성하였다.

별관 사용도 결정

많이 넓혀서 왔어도 교회학교 집회 장소가 중복되는 등 아직은 모자라는 데가 있어 온 교회가 기도하던 중에 새 예배당 바로 뒷 건물도 사용하게 되어 더욱 감사하고 있다. 현재 「대흥전자」가 사용하고 있는 이 건물을 대표이사인 장영학 씨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전으로 사용됨을 기쁘게 생각하며 양도키로 한 것이다.



감사하며, 질서 가운데

주간 내내 연인원 70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나와 교회의 물건들을 논현동에서 반포동으로 옮기는 일에 힘을 모았다. 시간으로, 몸으로, 어떤 이들은 물질로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로. 심지어 다른 교회 성도들까지 이 일에 한 마음으로 동참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날씨도 쾌청했고 아무런 사고 없이 이전과 설비를 완료할 수 있었다. 감사와 질서 가운데...

제 2 회

한가족 • 한마음 축제

5월 5일(목) 아침 9시 30분까지
잠실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 모입니다.

•우리 팀, 우리교구•

팀	명	민	음	사	랑
해 당 교 구		1, 2, 5, 6, 9, 10	교구	3, 4, 7, 8, 11, 12	교구
색 상		청	색	백	색
단 장		오정수	장로	김대호	장로
옹 원 단 장		이관규	집사	박두호	집사

•준비하세요•

운동화를 신은 간편한 옷차림

점심시간에 다락방 식구들과 나눌 맛있는 도시락, 깔고 앉을 자리

그리고 ... 열린 마음

•적습니다, 적어요•

이 날 한마음되어 울려 퍼질 서울가족의 합성을
사진과 비디오 테이프에 남기려 합니다.

카메라와 비디오 카메라를 가지신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5월 5일(목)은

서울교회 화합과 축제의 날!

성도들 교제의 장은 옥탑 층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오랫동안 만난 교우들간의 대화광장은 언제나 우리교회를 활력있게 만드는 모임이었다. 새 예배당이 대로변에 위치한 관계로 이제 교제마당은 우아한 화단으로 장식한 옥탑층에 자리를 잡는다. 예배 후 뽀뽀히 헤어지기보다 차 한 잔 마시며 받은 은혜를 나누는 교제의 시간을 가지기 바란다.

예배위원, 찬양대원 모집

예배실 동시 수용능력이 커지면서 예배를 위한 안내위원, 헌금위원, 차량관리위원이 많이 부족해졌다. 예배위원회에서는 함께 봉사하실 분들을 찾고 있다.

여섯 개의 찬양대에서도 각각 함께 찬양할 찬양대원을 모집한다.

지원자는 사무국에 비치한 지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선발, 통지케 된다.

가정의 달 설교



이 중 윤 (목사·당회장)

자녀와 부모(I)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에베소서 6장 1 ~ 4절)

바울 사도는 교회를 대가족에 비유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 구성원을 설명하시는 중에 어린 아이도 예외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막10:13 - 16). 아무리 어린 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귀한 존재이며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원인 어린이의 인권과 인격을 존중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부모된 자가 하나님의 선물인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1.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부모는 자신의 권위를 남용하기 쉽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느끼는 자녀는 분노하게 됩니다. 부모의 지나친 기대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자녀는 심한 좌절감에 빠지게 됩니다. 가정에 가득해야 할 용서와 사랑이 결여될 때 자녀들은 왜곡된 성품을 가지게 됩니다. 정의로 와야만 할 가정에서 모순을 발견하면 아이들은 격노합니다.

어린이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부모된 자와 교회와 어른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부여하신 삼중직을 따라 제사장적, 선지자적, 왕적 직분을 잘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첫째,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백성의 죄를 걸머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물을 바치는 것이 제사장처럼 우리 자녀들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던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교육해야 합니다.

셋째, 다스리는 왕처럼 사랑의 권위로 어린이를 다스리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며 건강을 지켜주고 좋은 환경과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지게 해 주는 것이 어른들과 부모된 자의 책임입니다.

모든 일에는 양면성이 있게 마련이므로 될 수 있으면 자녀의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찾아 격려해 주고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가지는 자유에는 한계가 있으니 부모의 무조건적 사랑도 규범 안에서만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독립적인 인격자로 설 수 있도록 지혜로운 사랑과 믿음으로써 양육해야 하겠습니다.

2.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양육하라’는 말에는 ‘잘 먹여주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유약하여 깨지기 쉬운 그릇과 같은 어린이를 잘 보호하여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신 과업을 온전히 온전히 수행하는 인격자가 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훈계’는 말로써 교육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과 상식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하는 훈계는 훗날까지의 삶의 귀한 지표가 됩니다.

‘교양’이란 훈련이란 모범된 행동을 말합니다. 주님의 교양을 가지고 장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높은 도덕심을 가지게 하고 강한 정신력을 지닐 수 있도록 하여 자신의 갈 길을 주 안에서 스스로 찾는 독립적 인격자가 되도록 훈련시키고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를 모델로 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부모가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삶의 본을 따라 살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성경의 가치관을 따라 살도록 하고, 선을 행하도록 독려하며, 진리는 받아들이고 잘못된은 버리도록 하는 것이 주의 교양과 훈계로 하는 양육의 내용이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주 안에서’ 해야 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배후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부모된 자는 자신의 자녀 교육이 주님께 인정받아야 함을 기억하고, 주님의 교양과 훈계를 따라 주님 뜻대로만 자녀를 양육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단순히 부모의 뜻에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순종함을 통해 주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국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책임을 다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이 민족 사회에 꼭 필요한 일꾼이 우리의 가정을 통해 많이 배출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막10:14)

✦ 순례자 컬럼 ✦

아빠의 기도

아가야 자라거라 구김없이 뚝뚝 자라거라. 싱싱하고 거침없이 넉넉하게 자라거라. 한번 구부러진 나무를 다시 바로잡기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차라리 꺾어 화덕에나 넣는 것이 좋을 것이라 하시던 옛 어른들의 말씀이 기억난다. 뽕물은 흐려도 너희들만은 맑아야 하고, 사회는 더러워도 아가야 너만은 깨끗이 자라다오.

대한의 아들들이 사랑하는 딸들이 민족의 동량이고 천국의 시민이여 아가야 자라거라. 사랑과 진리로 은혜와 기쁨으로 높이높이 뻗어가라. 깊이 깊이 뿌리를 내리라. 풍진세월 한하지 말고 부끄러운 조상 탓하지 말며 아가야 눈을 떠라. 머리를 들고 산을 보라. 하늘을 보라. 너를 돕는 손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입을 열어 기도해 보라.

너희들 세대에는 최루탄 냄새도, 집단농성도, 경제불황도, 도덕적 퇴폐 행위도, 그리고 이기주의적 황포도 없는 아름답고 깨끗하고 공의와 사랑이 넘치는 사회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자.

논현동 시대를 마감하고, 반포동 시대를 맞이하며

권 상 석 (목사 · 3, 4교구, 중동부 지도)

한 시대를 마감하고 한 시대를 연다는 것은 시간적인 개념보다 그 의미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기어다니다가 이제 막 걷기 시작하는 아이만큼 성장한 우리 교회는 꿈 많은 소년으로 그리고 무궁한 잠재력을 발휘하여 힘과 지혜와 용기로 꿈을 이루는 청년의 모습을 향해 계속해서 달려가야 한다.

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인정하실 선교 21세기의 선두 주자로 만개한 꽃처럼 사랑받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한 시대가 가고 또 한 시대가 왔으니 이제는 미래의 새 시대를 여는 역사와 전통을 만들어 시대를 향도하는 민족 교회의 얼굴이 되어야 할 것이다.

논현동에서 꿈을 꾸었다면 반포동에서 꿈을 심고 앞으로 허락될 가나안에서 꿈을 완전히 이룰 것이다.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다.

아이를 낳아 기르다 보면 매우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하게 된다. 허공만 쳐다보던 아기가 어느 날,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게 되고, 누워서 가만히 팔다리만 움직이던 아기가 어느 날 뒤집게 되고, 어느 날 갑자기 기어 다니다가 또 어느 날 벽을 타

며 걷고 그 다음엔 뛰어 다니게 되는 것이다. 역사란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과학 문명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컴퓨터 산업은 역사 또는 전통보다는 미래적인 의미가 더 중대하다. 그러나 미래적 기술도 과거 역사나 전통이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새로운 것이 창조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역사와 전통을 가진 교회는 그 교회가 가진 힘이 완전히 쇠하여 역동성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는 한 이상은 역사의 중심은 아닐찌라도 역사와 전통만으로도 자랑스러운 것이다.

역사와 전통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교회는 '갓 태어난 서울교회'에서 이제 '걷기 시작한 서울교회'가 되었다. 논현동에서 태어나 뒤집기를 하며 기어다니던 서울교회가 벽을 타고 걷기 시작한 것이다. 어떤 면에서 본다면 서울교회는 태어나자마자 너무 갑자기 크고 성장해서

마치 기형아처럼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갑자기 자란 몸 때문에 때로는 뒤뚱거리기도 했으나 그럼에도 정신연령도 매우 빠른 속도로 자라는 것도 사실이다.

한 시대를 마감하고 한 시대를 여는 것은 시간적인 개념보다 그 의미가 더 중요하리라고 본다면

벽을 타고 걷기 시작한 우리 교회는 꿈 많은 소년(少年),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가진 교회로 그리고 힘과 지혜와 용기로 꿈을 이루는 청년(靑年)을 향해 계속해서 달려가야 한다. 마치 마라톤 선수가 결승점을 향해 뛰듯이 끊임없이 뛰어야 한다. 그리고 꽃봉우리가 활짝 만개하여 아름다움의 극치를 보여주듯

낙수(落穗)

*** 첫번째 이야기** - 가장 힘들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은 예배실이던 4, 5, 6층 긴 의자를 내리는 일이었다. 여러명이 무겁고도 긴 의자를 하나씩 들고 좁은 계단을 내려와야 한다고만 생각했었는데, 외인부대(?)에 의해 개발된 기발한 방법으로 그 긴 의자들이 줄을 타고 가며 내려왔다. 동네 꼬마들도, 차를 타고 지나가던 아저씨도 그 신기한 광경을 멈추어 서서 구경했다.

*** 두번째 이야기** -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배부르게 하던 논현동 교회 식당도 이번 주가 마지막이었다. 이사가 계속되는 동안 내내 가장 분주히 움직이고 사람의 발길이 가장 많이 닿았던 곳이기도 했다.

봉사자들을 위해 장로 부인들의 모임인 「무지개회」에서는 점심과 저녁, 간식을 준비하고 대접했다. 넉넉 잡고 50명 분의 식사를 준비했는데 150명이 와서 당황한 이사 첫날, 첫 식사는 모자라는 밥을 김치전과 떡으로 순발력 있게 대처했다. 핀치타는 유능해야 한다더니 주식보다 더 인기있었던 부식 덕분에 마치 시

골의 인정어린 잔칫날 같았던 식당 한 칸에서 들리던 어떤 봉사자의 말 - "날마다 이랬으면 좋겠다!"

*** 세번째 이야기** - 교회 부근에 사는 어느 형제, 너무 열심히 일하다가 그만 바지가 뜯어지고 말았다. 얼굴이 빨개져서 포장박스로 가지고 황망히 집으로 갔다. 그리고는 잠시 후 다시왔다. 잘 늘어나는 바지로 갈아입고.

*** 네번째 이야기** - 짧은 기간 동안 과연 해 낼 수 있을까했던 우려(憂慮)가 어리석은 우려(愚慮?)였음이 드러난 지난 일주일, 시설 설비와 이사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현장에 쏟아놓은 살림살이는 얼마나 많던지. 2년 반 동안 늘어난 살림들을 보며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모두들 우직스럽게 일한 덕에 그 많은 살림살이들이 새 집, 제 자리를 찾아갔다. 거뜬히 해냈다. 혹자는 이것이 '서울교회식'이라고 했다.

*** 다섯번째 이야기** - 모두들 주일에 보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성장을 하던 주일의 모습과는 달리 청바지

에 티셔츠, 운동복 차림이었기에 그러했고, 땅과 먼지에 얼룩진 때문이기도 했다. 평소에 근육을 잘 사용하지 않던 집사님들은 피로로 인해 얼굴이 부은 탓도 있었다. 무거운 다리를 끌고 다니다시피 하면서도 눈빛만으로도 친해질 수 있었던 것은 노동 후의 기분 좋은 나른함을 공감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새 예배당에서 사용될 물품을 기증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른 손이 하는 것 왼 손이 모르게 하신 이들에게 복 있으라"

1층예배실 강대상 · 의자 · 성찬상 · 교회학교 강대상 세 개 · 교회학교 의자 · 그랜드 피아노 한 대 · 피아노 3대 · 대형녹음기 한 대 · 교회당 음향시설 일체 · 음향시설 시공 일체 · 1, 2층 예배실 휘장 · 각종 커튼 일체 · 칸막이공사, 강당 공사, 바닥공사 일체 · 카펫트 일체 · 옥탑층 옥외용 의자 일체 · 인쇄기 한 대 · 떡간치 비용 일체 · 이전 기간동안의 봉사자 식사비용 일체 · 그리고 과부의 엽전 두 닢 등 · 할렐루야!

어린이 주일에 듣는 광야의 소리

엄마는 왜 밥 못해

신 세대 아빠들은 바쁘다. 그래서 아빠의 이름이 '바빠'로 바뀌었다. 얼굴 보기 힘든 아빠는 미운 것이다. 그래서 또 생긴 별명이 아빠는 '나빠'이다.

그렇다고 엄마는 선량한가? 절대로 아니다. 아빠를 달아서 엄마의 머무는 곳이 다양해졌다. 어제는 동창회, 오늘은 낚시, 내일은 구역예배, 모래는 동네 아줌마들과 쇼핑. 백화점 세일이기 때문이다.

오늘도 엄마는 외출하면서 전화기에 녹음을 하였다. "개똥아 엄마 오늘 늦을 거다. 배고르면 너 좋아하는 피자 사 먹거라. 돈은 전화기 옆에 놓고 간다. 미안. 엄마가."

그렇다. 우리 집 엄마는 겨우 밥을 한다. 그것도 한 달에 몇번만. 나머지는 각자 외식이다. 그래서 나는 달래, 냉이, 썬바귀, 고사리 같은 나물은 모른다. 밥상에 올라온 일이 없기 때문이다. 어느 사이엔가 내 식성은 서양식이 되었다. 피자, 햄버거, 치킨이 내 주식이다. 내 몸은 똥똥해지기 시작했고 소위 말하는 비만형으로 바뀌었다. 이것은 전적으로 엄마 책임이다. 엄마가 밥을 안해주기 때문에 나는 서양 사람이 된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피자집으로 가는 중이다. 엄마는 언제 밥을 지어 주실까 생각하면서...

교회학교 소식

* 사랑부 - 오셔서 저희를 지도해 주세요.

"행동이 자유롭지 못한 저희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돌보아 주실 선생님들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저희는 집과 교회 사이를 오가는 일에 선생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차로 저희를 태워 주실 수 있는 선생님, 그리고 차를 타고 내릴 때와 사랑부 집회일까지 오르 내릴 때 우리들을 힘있게 붙잡아 이끌어 주실 선생님들, 저희를 찾아와 주세요."

* 1주년을 맞이한 대학부, 청년부

대학부와 청년부가 개교 1주년을 맞았다. 교회설립 초기, 「대청부」로 출발하였다가 양적인 증가와 보다 차별화 된 내용의 교육의 필요성을 따라 「대학부」와 「청년부」로 독립한 지 1년이 되는 것이다. 새 예배당 입당과 더불어 맞이하는 생일을 의미있게 생각하면서 5월 중순 쯤 두 부서가 연합으로 1주년기념행사를 치를 예정이다.

* 소망부 - 반별 찬송경연대회

지난 주일(4월 24일) 소망부에서는 반별찬양경연대회를 했다. 다함께 한복을 곱게 차려 입고 나온 반도 있었고, 처녀 때처럼 흰 블라우스에 검은 스커트를 입은 할머니 반도 있었다. 1등상, 우등상, 인기상, 장려상 등 많은 상이 시상되었지만 호소하는 자로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소망부 할아버지, 할머니들께 하늘의 상이 예비되어 있으리라.

서울주간기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1. 새 예배당에서의 모든 일들을 통해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2. 「한마음-한가족 축제」가 성도간에 진정한 화합과 축제의 날이 되게 하소서
3. 제5차 「김치세미나(KIMCHI Seminar)」를 은혜 중에 준비하게 하소서
4. 어린이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하게 하소서

장소 변경

새 예배당 입당과 더불어 모임과 사용을 위한 장소가 변경된다. 그러나 예배와 교회학교 모임의 시간은 종전과 같다.

예배 및 집회

구 분	장 소	시 간
주일예배	I부	1, 2층 예배실 오전 9시
	II부	1, 2층 예배실 오전 11시
	III부	1, 2층 예배실 오후 2시
찬 양 예 배	1, 2층 예배실	주일 오후 5시
수요예배	I부	1, 2층 예배실 오전 11시
	II부	1, 2층 예배실 오후 7시
금 요 기 도 회	2층 예배실	오후 9시
새 벽 기 도 회	2층 예배실	매일 오전 5시 30분

교회학교

부 서	장 소	시 간
탁아부	I부	304호 주일 오전 9시
	II부	304호 주일 오전 11시
유치부	I부	405호 주일 오전 9시
	II부	405호 주일 오전 11시
유 년 부	301호	주일 오전 9시
초 등 부	401호	주일 오전 9시
중 등 부	교육관 5층	주일 오전 11시
고 등 부	교육관 6층	주일 오전 11시
새 가 족 부	2층 예배실	주일 오후 12시30분
대 학 부	401호	주일 오후 1시
청 년 부	303호	주일 오후 1시
사 랑 부	교육관 5층	주일 오후 2시
소 망 부	301호	주일 오후 12시40분

그 밖의 장소들과 주차장

실 명	위 치
찬 양 1 실	302호
찬 양 2 실	402호
당 회 실	406호
교 역 자 실	403호
사 무 국	404호
테이프보급실	202호
예 배 위 원 실	201호
새가족등록실	203호
상 담 실	201호

동경주차장은 이번 주부터, 논현주차장은 다음 주부터 이용을 중지한다. 대남, 강남, 제일은행주차장은 계속 이용할 수 있으며, 새 예배당 지하 주차장도 이용 가능하나 새가족과 노약자들이 가까운 곳을 이용할 수 있도록 먼 곳부터 주차하자.

5월 9일 목회자세미나

* 제 1교시 / 「로마서 강해」 - 이종운 목사

* 제 2교시 / 「주제설교와 강해설교」 - 정성구 교수

■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ILKY 837KHz) 「성경교실」 매주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I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대전 기독교방송(HLAI FM 93.3MHz) 「늘푸른 초장」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 6시50분
아세아방송(HILAX 1566KHz) 「주일설교」 매 주일 오전 8시 ~ 8시 30분
「주일설교 재방송」 매주 화요일 오전 4시 10분 ~ 4시 50분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수요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

